

우리가락 알리기 어느덧 400회

지난 25일 저녁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이하 전수관)에서는 야쟁 연주자 서영호씨의 공연이 열렸다. 그는 올 3월 작고한 야쟁 명인 서용석 선생의 아들. 서씨는 아버지가 만든 유파인 '서용석류 야쟁 산조'를 연주했고, 이날 공연에는 서 명인의 미망인 최산옥씨도 '흥타령'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서씨 모자(母子)가 선 무대는 광주시 서구가 주최하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 399회 행사였다. 지난 2003년 첫 공연을 가진 빛고을국악전수관의 '목요열린국악한마당'(이하 국악한마당)이 400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은 광주 유일의 국악 전용 공연장이다. 전통 가옥의 실내를 형상화한 독특한 무대가 인상적인 공간으로 150석의 객석을 갖추고 있다.

서구청이 전수관을 개관한 건 지난 2002년 10월. 이듬해 5월 정식 예산 없이 '토요상설공연'이라는 이름으로 열리기 시작한 공연은 2004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악한마당에서는 관소리, 국악 관현악, 실내악, 가야금·야쟁·거문고 독주회 등 다양한 장르가 공연됐다. 출연진 면면도 화려하다. 국가 지정 문화재인 송순섭 명창을 비롯해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인 주순은·박춘명·김향순씨, 가야금연주자 성심은·성예순·문명자씨 등이 무대에 섰다. 또 능력 있는 젊은 연주자들을 초청, 독주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국악계를 탄탄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현재 공연예산은 2420만원 수준. 연간 42회 공연을 진행하기에는 적은 액수지만 적절한 추임새로 출연자의 흥을 돋우는 등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 개런티에 상관 없이 흔쾌히 출연하는 국악인들이 많다.

전수관측은 첫째, 셋째주는 기악 공연을, 둘째, 넷째주는 성악 공연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빛고을국악전수관 목요상설공연이 400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진은 '황도제' 공연 모습.

개관 11년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 목요 공연 400회 돌파

관소리·가야금 등 다양한 공연 즐기고 국악 문화학교도 인기

7월 누적 관객 5만명...9월5일 이난초 명창 기념공연

을 구성, 관객들에게 다양한 국악 공연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7월말 현재 누적 관객수는 5만여명을 넘어섰으며 매회 120~130명이 꾸준히 찾고 있다. 또 30여명 정도는 거의 모든 공연을 빼놓지 않고 관람하는 '열혈 관객들'이다.

전수관이 진행하고 있는 '국악문화학교' 역시 매 분기마다 22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야쟁·고법·장구·가야금 병창 등 모두 8개 분야 12개 강좌(초급·중급)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수강생은 9200여명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방학 때만 진행하던 어린이국악교실을 폐지하는 대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상시적으로 아이들이 국악을 배울 수 있도록 '방과 후 어린이 국악교실(가야금·해금)을 운영 중이다.

전수관의 또 다른 볼거리는 다양한 악기를 만날 수 있는 국악기 전시실(매주 월요일 휴관)이다. 이곳에서는 관종·관경·가야금 등 150여점의 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연주해 볼 수 있다.

혹서기인 8월 한달간 휴지기를 가진 후 9월5일 이난초 명창이 출연하는 400회 공연을 시작

으로 국악한마당은 계속된다.

장용수 학예사는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악전용공연장에서 400회 넘는 상설공연을 진행한 건 의미있는 일"이라며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국악한마당이 관객들의 반응이 좋은, 꼭 보고 싶은 무대로 꼽힌다"고 말했다.

장씨는 또 "몇년전 광주시의 지원으로 국악단체들을 초청, 다양한 무대를 열어 큰 호응을 받았었다"며 "광주시의 지원이 재개돼 좀 더 풍성한 행사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인성작 '췌'

미술, 虛와 實

미테-우그로, 9월13일까지 '허실전'

현대사회에서 자본과 미술의 결합은 어떤 의미일까. 작가에게 창작 활동 이전에 명성과 부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는 것을 아닐까. 우리는 작품의 '의미'보다 '상품성'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을까.

대인예술시장 내 대안공간 미테-우그로(Mite-Ugro)가 9월13일까지 미술계의 흐름에 대한 자기반성적 성찰을 담은 '허실'(虛實)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미술시장과 다른 지점을 바라보는 작가 전준모, 이인성 황해원씨 등 3명이 초대됐다. 이들은 릴레이 전시를 통해 영상, 설치, 드로잉 등 각기 다른 방식의 작업으로 공통된 생각을 얘기한다.

전준모(오는 14일까지)씨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강아지 영상과 같은 폭력적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현대사회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으로 인한 폭력성을 자각하게 한다.

이인성(16~28일)씨는 끊임없이 공을 던지는 피침머신을 통해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황해원(30일~9월13일)씨는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삶과 일치되는 작업을 통해 체득된 삶을 이야기 한다. 문의 070-7782-39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문 문화기획자 키운다

이문단-전남대 靑문화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황지우·최재천·신영복 교수 등 강사진 화려



최재천

황지우

신영복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오는 10일까지 아시아 문화기획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시아문화아카데미(Asia Culture Academy) 수강생을 모집한다.

아시아문화아카데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최하고 전남대와 광주문화재단, (주)쥬스컴퍼니가 공동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성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달 개관 실무능력 증진을 도모하는 공통 강좌 ▲아시아문화를 콘텐츠화하는 문화지식코디네이터 양성 Lab ▲문화와 일상공간을 융합하는 공간문화디자인어 양성 Lab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예술소통기획가 양성 Lab ▲문화나눔 및 아시아문화전당에 적합한 한국형 문화ODA(공적개발원조)모델 개발을 위한 특별워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강사진이 화려하다. 황지우 한예종 교수(전한예종 총장), 이희수 한양대 교수, 신영복 성

공회대 석좌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보니타 M. 콜브(Bonit M. Kolb) 등을 비롯해 국내외 문화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강의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4주 일정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수료증이 발급되며 향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 추

진하는 프로젝트 참여 기회와 광주문화재단 취업·창업연계 프로그램 참여 혜택이 주어진다.

수강생은 외국인도 포함해 모두 30명이다.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등록금은 150만원(해당답사비용 부분 지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문화아카데미 블로그(blog.naver.com/acaacademy)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2-530-408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Classic & 국악'

8월 '천원의 행복' 오늘 광주서구문화센터

'천원으로 즐기는 문화 공연' '빛고을 천원의 행복' 8월 행사가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여름 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준비한 이번 공연은 'Classic & 국악'을 주제로 열린다.

1부에서는 클래식은 어려운 음악이라는 편견을 허물며 대중과 소통하는 음악을 해 온 '라르브트 앙상블'이 '오페라 모음곡', '4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등을 들려준다.

2부는 국악 창작 그룹 '그루'가 무대를 꾸민다. 레퍼토리는 '망월', '어느 봄 날', '하얀 꽃잎', '나비야', '나무', '배 띄어라', '속대머리', '진도 아리랑' 등이다. www.gjasia.org.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서비스표등록증
5-18낙지

상표등록 : 41-0241299호

낙지의 명가 5.18낙지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문의 ☎ **061-375-2383**
HP. 010-6656-0002